

사회

# ‘오현섭 비리’ 본격 사법처리

## 전·현 여수시의원 6명 영장신청 ... 현직 도의원 3명 포함

‘오현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여수시의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6명 중에는 현직 도의원이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수경찰은 7일 오현섭(60·구속)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A(57)씨 등 전·현직 여수시의원 6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과 지난 5월 오전 시장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모두 돈을 받은 의원 4명과 혐의를 부인한 의원 2명

에 대해 우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 등은 ‘야간경관조사사업’과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흘러나온 뇌물을 오 전 시장의 측근 주모(67·구속)씨 등을 통해 간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6명 외에도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된 전·현직 시의원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이순신광장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시의원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오현섭 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전·현직 여수시의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함에 따라 ‘오현섭 비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여수시의 ‘해수담수화 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해가는 등 여수시 안팎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야간경관조사사업’과 관련해 여수시청 직원 4명이 금품수수와 향응을 받

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또 ‘오현섭 비리 사건’의 뇌관 역할을 한 ‘야간경관조사사업’ 외에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460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131억원)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84억원)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오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 대부분이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야간경관사업’과 ‘이순신 광장 사업’의 시공업체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이주여성 한복입고 송편 만들기 7일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센터에서 추석(22일)을 앞두고 열린 ‘이주여성 추석 명절 체험 행사’에서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이주여성들이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영산강 골재채취 입찰부정 도시공사 간부 기소

검찰이 ‘100억원대 영산강 골재채취사업 입찰부정 의혹’(본보 6월 11일자 6면)에 연루된 광주시도시공사 간부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골재채취 사업 입찰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입찰 방해 등)로 광주시도시공사 팀장 권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 29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레스토당에서 영산강 골재채취 입찰에 참여한 D건설업체 대표 전모씨에게 입찰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3월 26일에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으면 여대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또 3월 말께 I업체 대표로부터 다른 입찰참여 업체의 재무제표와 공정 신용평가서 등을 받아 검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발주처 책임자의 권한을 이용해 입찰참여 업체들의 시공실적과 경영실태, 입찰 가격 등 주요 입찰정보를 상대 업체에 흘리고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월 30

일 ‘영산강 원석선별 및 상차 대행사업 단가입찰 공고’를 낸 뒤 담당직원의 코드입력 오류와 공고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3차 입찰에서야 5건소사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 2차 입찰에 참여한 D업체 등이 3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부차작용이 발생하면서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D업체는 입찰 탈락 직후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시도시공사가 1차 입찰이 유효한데도 2, 3차 입찰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총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시 서구 용두동 13만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입찰절차 진행을 금지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포교당 운영 승려 안방서 목매 숨져

지난 6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건물 4층에서 승려 정모(67)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매 숨겨져 있는 것을 아래층에서 담구장을 운영하는 J(4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J씨는 경찰에서 “4층으로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불도 켜져 있고 인기척도 없어 가보니 숨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발견 당시 승려복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집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안타까운 ‘별초 사고’

진도 70대 야산서 경운기 추락 사망  
광주선 60대 별초 후 피로호소 숨져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 별초에 나선 60대와 70대 노인들이 잇따라 숨졌다.

7일 오전 10시35분께 진도군 지산면 세방마을 뒤 야산에서 김모(79·진도군 지산면)씨가 몰던 경운기가 5m 아래 대파밭으로 추락, 김씨가 경운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지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부인 강모(77)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운기를 타고 별초하려 나선 김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B여인숙에서 완도 C초등학교 교사 노모(61·광주시 서구 금호동)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여인숙 주인 강모(62)씨가 발견, 119에 신고해 인근 대학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카운터 옆 방에서 신음 소리가 나 들어가 보니 노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전날 곡성군에 있는 선산에서 동생과 함께 별초를 했으며, 고혈압 증세가 있어 8년간 매일 복용해온 약을 깜빡 잊고 곡성에 두고 오는 바람에 약을 먹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 30분 전에 (노씨가) 여인숙에 들어와 ‘쉬어가겠다’고 말할 때도 얼굴이 창백했다”는 강씨의 진술과 매일 약을 복용해온 점을 미뤄 별초로 인해 피곤해진 상태에서 약을 먹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판매한 차 다시 훔쳐 서부경찰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7일 자신이 판매한 차를 판매 당일 다시 훔친 김모(22·경기도 시흥시)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8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골목길에 주차해 있던 전모(20)씨의 오토마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은행 앞에서 전씨에게 현금 195만원을 받고 자신의 오토마 승용차를 판매한 뒤 미행, 전씨가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날이 어두워지자 지니고 있던 예비별쇠로 차를 다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팔았다가 훔친 차를 팔고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진도·장성 저수지서 2명 숨진 채 발견

진도와 장성 등 전남지역 저수지 2곳에서 주민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오전 9시께 이모(59·진도군의 신면)씨가 진도군 근내면 월가저수지에서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중이던 해병대 전우회원(55)이 발견했다.

차량으로 대파밭에 인부를 태워다 주는 일을 하는 이씨는 전날 새벽 4시 30분께 인부를 태우기 위해 자신의 봉고차를 운전해 집을 나선 뒤 실종됐으며, 실종 당일 오후 5시30분께 월가저수지에서는 이씨의 그레이스 봉고차만 발견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에는 전남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됐던 김모(62)씨가 장성군 남면 덕성리 자신의 논 인근 신안저수지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부인(5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경찰에서 “남편이 전날 오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목포 직업소개소에 도박장 수천만원대 윗놀이·카드판

경찰 남녀 31명 검거

목포경찰은 7일 자신의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천만원대의 도박을 한 강모(47)씨 등 남녀 흥선 도박단 31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밤 9시15분께 목포시 보광동 자신의 A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장한 뒤 서모(53)씨 등 지인 31명을 불러모아 윗놀이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 등은 윗놀이 한 게임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관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310만원과 윗놀이·카드·화투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60대男 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다 벌미

○남·여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훔쳐보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1·광주시 동구 윤림동)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5분께 광주시 동구 소재 동 모 학원 화장실에서 이 학원 교사 문모(·여·25)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려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옆 칸에서 여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로 5cm·세로 10cm 크기의 손가락을 바다 틈새로 밀어넣은 뒤 훔쳐보려 했는데, 경찰에서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